

## ‘K-관광 영업사원’으로 뿔 관광수출 전담부서 생긴다

- 문체부, ‘관광수출전략추진단’ 신설
- ‘2023~2024 한국방문의 해’ 추진, 청와대 K-관광 랜드마크화, 지역관광콘텐츠 발굴 등 K-관광 수출 활성화 뒷받침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5월 8일(월) 자로 ‘K-관광 영업사원’ 역할을 할 전담부서로 ‘관광수출전략추진단(이하 추진단)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. 추진단은 세계적 인기의 K-컬처를 활용해 ‘2023~2024 한국방문의 해’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을 독보적인 관광매력국가로 발돋움하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. 관광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, 부단장 1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.

‘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천만 명, 관광수입 300억 불 달성 초석 다져

2023년은 국제관광의 회복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기로서, 추진단은 급속도로 회복 중인 세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,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천만 명, 관광수입 300억 불 달성의 초석을 다진다. ▲ 2023~2024 한국방문의 해 사업 운영과 관리, ▲ 청와대 권역 K-관광 랜드마크 조성, ▲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. 또한 문체부 직원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, 국토부, 법무부 파견 직원을 포함해 지자체와 협업한 지역 관광콘텐츠 발굴,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성 제고 등 관광 수출 전 분야의 정부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.

박종택 관광정책국장 겸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“부서명에 ‘관광수출’을 명시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것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다.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구성원 모두가 ‘K-관광 영업사원’으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, 한국 여행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정현 (044-203-2811)
		담당자	주무관	윤정건 (044-203-2810)

국민과 함께하는  
**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**

대한민국  
**지책브리핑**

